

白雨岩 長篇小說

女子 정신대



① 만주편/환향녀

“용서하지만 그러나 잊진 않으리”

우리는 이말을 일본군들이
여자정신대를 짓밟듯 짓밟아버려야 한다.
용서한다지만 과연 무엇을 용서할 것이며
잊지않겠다지만 과연 무엇을 잊지 않겠단
우리 모두가 귀머거리와 병어리들만
사는 이 민족은 아닐진대

이런 사실들을 잊고 사는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약정책에 무참하게 희생된

선녀의 체녀들!

이들의 청춘을 보상해 줄 것인가!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65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민족의 이름으로 씌어진 구도적 소설!!

女子 정신대

29:1 여체의 남근(男根) 처리능력이
하루에 29명이 한계인데도

그들은 우리 누이들을 하루에 삼백명, 삼분에 한명꼴로
하루 15시간을 짓밟아 나갔다.

“개만도 못한 놈들! 더럽고 무지막지한 종자들!

나도 죽여라, 죽어 네놈들을 잡아갈테다!

내 혼백이 영영 고향땅에 못가고 만주 땅에서 해매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네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잡아 씹어 먹을테다!”

위안대들은 다시 막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연병장으로, 병정들이 채찍질해 몰았다.

위안대들은 겁지 못했다. 네 발로 기었다.

연병장에 모여진 것은 여덟 마리의 짐승뿐이었다.

신경림 ‘女子 정신대’……

소재(詩人) 소재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소재의 특이성 때문에, 년픽션의 감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미순덕’의 의지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이 두 모순은 하나의 해결점을

향해 치달리게 되고, 여기에 이 소설의 참값이 있다.

…… 근대화주의의 가장 큰 기동을 이루고 있던 것은

친일주의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신식민주의의 무비판적 수용…… ‘女子 정신대’는

오늘의 문제점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한

사회소설로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